# 자기로부터 자기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자기 몸뚱이를 다스리면서 돌아가는 것이 관세음입니다. 그래서 고삐와 소를 말한 겁니다. 소를 모는 목동과 같이, 자기 몸을 한데 떨어지지 않게 다스리면서 가다가 내 마음이 그렇게 다스려지면 그냥 그대로 관세음입니다. 관세음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높이 있는 관세음을 찾거나 자꾸 이름을 찾아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관세음은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낮은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생활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자기가 바로 그대로 관세음입니다. 우리가 지켜보면서 듣고 말하고 그렇게 모든 생활 자체를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서 체험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으로만 부르고 바깥으로 들입다 관세음보살을 찾으니 관세음보살이 대답이나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 곧 관세음보살을 발견하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관세음보살도 이 '세상 세(世)' 자를 써서 세상 모든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름입니다. 이 세상 이름,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름. 그러니 그 이름 속에 바로 참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그릇을 놓고 '이 물그릇이 뭣고?' 하면서 아무리 돌려 가면서 봐도, 아무리 돌려 가면서 염하고 애를 써도 물맛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허탕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물그릇과 같다면, 물방울이 생기는 대로 여기 들어간다면 그냥 한 그릇이 돼 버리고 말죠. 그렇듯이 모든 걸 내 마음속에,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체가 없는 것을 체가 없는 데다 놓으면 두드러지지도 않죠. 체가 없는 데서 없는 것을 꺼내더라도 줄지도 않죠. 모든 것이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원장 스님 같은 길잡이를 만나기가, 말하자면 눈먼 거북이가 물속에서 천 년을 공부하다가 한 번 딱 떠오르는데 구멍 뚫린 뗏목을 하나 만나서 거기 안식처를 두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스승 한 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 너무나 지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전에 그런 공덕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지원장 스님 같은 길잡이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불교나 어디든 다 가 보십시오. 모두 타의에서 구합니다. '칠성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지장보살, 나를 좋은 데로 가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산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온통 바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하고는 또 바깥으로 돌고 이럽니다.

그게 무슨 짝입니까.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단 얘깁니다. 자기가 안 나왔으면 다 무효죠.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자기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수억겁 광년을 걸쳐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곤충으로도 짐승으로도 태어나서 수없는 나날을 쫓기고 쫓으면서 갖은 고생 다 하면서 진화되어 인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서부터 그렇게 끌고 온 장본인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에도 끌고 다녔고 지금도 끌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찾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중생이요, 발견하는 사람은 그대로 법신이고 또 부처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몸뚱이 속에 수없는 중생들이 있는데 이 마음 하나 공부하면 한마음으로 뭉쳐져서 그 모든 중생들이 바뀌어집니다. 중생이 보살로 바뀌어집니다, 화하는 거죠. 바뀌어져 가지고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이 마음 하나 공부하면 천백억화신으로 화하게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속에 수십억의 중생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로 인해서 수십억의 중생들이 제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몸과 행동과 말 등 모든 걸 다스리고 나가게 되면 몸속의 중생들이 다 다스리는 대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업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이런 문제들을 전부 타파하는 겁니다. 진짜로 거기다 맡기고 정말 믿어서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해 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는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그냥 확확 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업이 무너집니다.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유전성이 무너지고 업보성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내 생활도 차차 빛이 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업보가 무너져서 악행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정 살림이 좀 더 펴지고 가족이 융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에 관해 또 한 가지 말하죠. 나가서 나쁜 짓을 한다든가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가 뭐, 집안에서 속을 썩인다든가 공부를 안 한다든가 이런다고 해서 "야, 요놈의 새끼야! 배울 시기에 배워야지 부모가 애쓰고 벌어서 공부시켜 주는데 요렇게 놀다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하고 욕을 하고 온통 야단을 치고 붙접을 못 하게, 그저 잘못하는 대로 붙들고 야단을 치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여기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끔 해야 환하게 불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부모의 마음을 따라 주게끔 되는 거지, 덮어놓고 말로 그냥 한몫해 버리면 외려 몸뚱이가 달아나가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서도 '저놈의 집에 들어가면 또 귀찮고 냉랭하고 따뜻하지가 못하고 이럴 거야.' 이런다면 자연적으로 멀어져요. 들볶으면 남편도 역시 그럴 거예요. 부인도 자식도 그럴 거구요.

그런데 그것이요, 솔직한 얘기지만, 딸에게든 아들에게든 남편에게든 부인에게든 '마음을 고쳐 줄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하고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해 주고, 아주 사심 없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속에서 이런 게 치밀더라도 그 화나는 것을 거기다 맡겨야죠. 화가 나게 하는 것도 안 나게 하는 것도 거기뿐이니까, 화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화 안 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 있다 이거죠. 그러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왜 맡겨 놓으라고 하느냐. 아들이다 남편이다 부인이다 딸이다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 그 자체가 가설이 된 겁니다.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가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 된 전구에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해 줄 때, 바로 그쪽까지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지켜보세요. 그러면 체험을 하게 돼요. 작든지 크든지 그렇게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실천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귀한 줄도 알고, 아들 딸 남편 부인 모두 소중한 줄 알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다. 만약에 부인이 석 달이든 일 년이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라야 하고 한 달 두 달이라야지, 만약에 일 년이 넘어갔다, 이 년이 돼 간다, 이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럴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 아닌 배신을 하겠죠? 아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남편을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오랫동안 드러누워 있지도 않을 것이며 모두가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할 겁니다.

내 가정의 가족 모두에게 불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에도 같이 들어오고, 세상에 불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우주에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저이는 그냥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려니….' 하고 듣고 있죠, 예? 우주에 불이 같이 들어온다니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막연히 그냥 듣고만 있을 테죠.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혹성이 돌아갑니다. 은하계도 마음의 생명의 그 근본 자리에서 돌아가니까 천체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대로 바로 태양에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 태양은 우리들 마음을 따뜻하게, 모든 만물을 따뜻하게 해서 길러 주는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따뜻한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달은 밝음과 청정함을 말하고 해는 따뜻한 것을,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꽃들이 가지각색으로 많듯이 사람도 그 마음 그릇의 꽃이 천차만별로 돼 있단 얘기죠. 그런데 수많은 이름의 꽃들이 있더라도 꽃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가지가지 꽃의 이름이 있어도 꽃이라는 것만은 하나입니다. 사람도 갖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하나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왜 이것저것 다 없다고 하느냐 하면 주인공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게 해결이 날 것을 그냥 요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표현하자면, 돈 한 가지만 가지면 전부 살 수 있는 것을 왜 요것조것 걱정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모든 생활 자체가 바로 주인공에서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고무줄과 같은 건데 말입니다. 거기다 맡겨서 체험을 하시고 그 맛을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정말!

여기 온양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공부하셔서 체험을 하고 돌아가신다면 요다음 생에는 나올 때 아마 그냥 키만 들고 나올 겁니다, 하하하. 오조 스님께서 "방아는 다 찧어졌느냐?" 하니까 육조 스님이 "찧어진 지 오랩니다만 키질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키질만 못했다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공부하신다면 다음 생에는 키만 들고 나올 거라 이겁니다. 뚜껑만 열면 다 되게끔 돼 있겠죠, 뭐.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한마음이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온 누리를 다 건질 때, 여러분의 한마음 공부 한 것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은 하늘을 보고 앙청하고 땅을 내려다보며 통곡을 하시겠죠. 이 소리는 절름발이가 절름발이를 면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보이지 않는 데 냄새를 맡게 되니까 모든 일체가 다…, 일체를 다 준대도 바꿀 수 없고 언어가 붙지도 않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하늘을 보고 앙청을 하고 땅을 내려다보며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 앙청하는 소리가 우주 천체를 울릴 수 있다, 범종이 울리듯 말입니다. 그 앙청하는 소리는 보이지 않는 데 중생들이나 보이는 데 중생들이 다,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중략)

그러니까 그저 말로 이해타산을 하고 요것조것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자길 믿는데 무슨 이해타산이 들어갑니까? 무슨 따지는 마음이 들어갑니까? 똥이 마려워서 변소간에 들어갈 때도 이해타산이 있겠습니까? '내가 똥을 눠야 될까, 안 눠야 될까?' 하고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도 이해타산이 들어갈까요? '요걸 먹어야 옳을까, 안 먹어야 옳을까?' 하고요. 이해타산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믿고, 똥 마려우면 변소간에 가서 화닥닥 그냥 시원하게 눠 버리는 거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해 줄 때**
**바로 그쪽까지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5월 20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 | 1일차 (8월 24일, 수) | 2일차 (8월 25일, 목) | 3일차 (8월 26일, 금) |
|---|---|---|---|
| 09:00~12:00 | |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 현대인을 위한 포교 |
| 14:00~17:00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 |
| 18:30~20:30 |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 |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